

흥부제전위원회 위촉식 개최

제13대 흥부제전위원회 출범식이 제전위원회 및 행정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9일 개최되었다.

향후 2년 동안 흥부제 행사를 추진할 흥부제전위원으로 김진석(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장) 위원을 비롯한 사회, 문화, 예술단체 대표 등 총 23명이 새롭게 위촉되는 등 제25회 흥부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제전위원은 총23명으로 남성이 17명, 여성이 6명이며, 40대 이하가 9명이며, 50대 이하가 13명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제12대 보다 훨씬 젊어지고, 보다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었으며, 출범식에서 김진석 제전위원장이 재선임되었다.

중앙절(음력 9.9)을 전후로 개최하여서는 흥부제 행사 일자는 10월 27일~29일로 확정했다.

한편 올해 흥부제 행사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가족단위 관람객을 겨냥한 각종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발효소스토굴' 대표 피서지 우뚝

순창군, 국내 최대 규모 장류저장고로 미디어아트 체험관 조성... 가족 단위 관광객 발길 사로잡아

순창군 발효소스 토굴에 조성된 미디어아트 체험관이 인기를 끌면서 발효소스토굴이 여름철 가족 피서지로 새롭게 각광 받고 있다.

순창발효소스토굴은 조선시대 궁중의 장을 보관한 장고와 장고를 지키던 장고마마의 이야기를 모태로 해 순창고추장마을에 조성된 길이 134m, 최대폭 46m의 국내 최대규모 장류 저장고다. 이곳은 50여개국 600여 소스를 스토리와 함께 풀어낸 소스기획전시관, 핑크간장, 간장소금이고 5대 마더소스를 색으로 구분해 전시하고 있는 '소스 색을 입히다' 전시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토굴은 입구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으로 연평균 기온 15도를 유지하고 있어 여름철이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순창의 대표식품인 고추



순창군 발효소스 토굴에 조성된 미디어아트 체험관 사진.

장, 된장, 간장, 각종 장아찌류 등이 저장고에서 숙성되고 있는 광경을 직접 볼 수 있어 전통 식문화에 대한

자녀 교육장소로도 손색이 없다. 여기에 청국장군으로 발효한 발효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카페 공간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이달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납부기간 운영

남원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기간이라고 알렸다. 앞서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내 대상 사업장으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한 바 있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인적·물적 실비를 갖추고 소근방문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군측의 설명이다.

미디어아트 체험공간은 장의 제조과정과 숙성과정을 미디어아트를 통해 관람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래픽 체험공간이다. 아이들이 직접 그린 공방이 화면에 생성되어 발효과정을 거친 다음 전통장이 되는 과정을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다. 효모 만들기 체험존, 메주만들기 체험존, 숙성 체험존으로 나뉘어 체험이 가능하다.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며,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 기숙사, 휴게실, 체육관, 목욕탕, 폐기시설 등의 면적과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제외된다.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신고 대상에 대하여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10%)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월 31일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를 못할 경우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가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간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 지역경제 살리기 팔걸어

지역서 휴가보내기 운동 추진

순창군과 지역사회단체가 '여름 휴가는 순창에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해 지역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팔을 걷어 부쳤다.

군은 19일 군 공무원과 (사)정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순창군 지역본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순창군지부 회원 등 60여명이 참여해 여름휴가는 지역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순창 IC, 순창고 사거리와 지역다중이용시설, 지역관광사, 상가 등을 방문해 리플릿을 나눠주며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은 물론 친척과 친구 등 지인에게 순창 휴가지를 소개하고 휴가 상품도 순창에서 구매해 줄 것 등을 홍보했다. 이번 캠페인은 2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애용심을 갖고 지역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 지역에서 실질적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폭염 악몽 재현없다" 남원시 피해예방 총력

주요도로 살수작업·다중이용시설 얼음비치·무더위쉼터 운영 등 민·관합동 선제적 대응

남원시(시장 이원주)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6년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올해 또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도로 살수작업, 시민 다중이용시설 얼음비치, 폭염피해 예방 캠페인, 무더위쉼터 운영 및 휴식시간제 운영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총정로, 용성

로 등 시내 주요도로 7개 노선 10km 구간에 관내 유관기관(남원소방서)과 업체(남산레미콘, 아성레미콘) 지원 및 살수차 인차를 통해 지난 7월 12일부터 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의 협조를 받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승강장 및 워터 등 다중이용시설 얼음비치, 남원정남(4일, 9일)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에서 시원한 먹는물 제공 및 홍보 리플렛 배부를 통한 폭염피해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한, 마을경로당, 마을회관 등 관내 506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여 폭염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영농작업장 및 건설사업장에서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무더위 휴식시간제(14:00~17:00)를 운영하도록 홍보하는 등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지속적인 기상상황 모니터링 및 상황유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은 19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함께하는 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임실군'을 주제로 2017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임실군 양성평등 문화 실현 앞장

기념행사 300여명 참석... 인식개선 전환점 기대

임실군은 '함께하는 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임실군'을 주제로 2017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여성의 역량을 결집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19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심민 군수, 방영두 군의장, 기관단체장 및 여성단체 회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순옥(전)성공회대 교수와 최명옥 종로화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한국의 여성성과 미래'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또한 선이 오페라 앙상블, 지역동아리 스포츠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

화 행사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평소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에 앞장선 유공자 10명에게는 군수 표창이 수여됐다.

심민 군수는 "여성의 역량을 한데 모아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을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며 "일과 가정 양립,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백혜신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서로 소통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인식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매주 수요일 인문학 강의 열려

임실 '섬진강이 품은 역사와 문화' 주제 진행

임실의 역사와 문화를 보고, 느끼고, 만지고, 체험하는 특별한 이야기 보따리가 주민들을 찾는다.

임실문화원은 '섬진강이 품은 임실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19일부터 오는 10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인문학강의를 진행한다.

최성미 원장의 기초발제를 시작으로 객장근 군산대 교수, 김진돈

전북 금석문화회장, 송화섭 전주대 교수, 이종희 전주역사박물관장, 나종우 원광대 명예교수, 서홍식 전북 서예협회장이 강사로 나서 특별한 임실이야기를 선사한다.

고고학, 금석문 이야기, 민속 및 율곡유적, 역사, 정신, 전통예절 등 임실이 품은 다양한 소재와 장르를 넘나드는 이야기가 강사들의 전문

성과 결부돼 색다른 시선으로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총 14강으로 구성됐으며 현장답사도 함께 진행돼 만지고 체험하며 역사와 문화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심민 군수는 "임실문화원의 신속개원과 더불어 지역민의 문화사랑방 역할과 함께 임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미 원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임실을 공부하는 일이야말로 올 여름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심부(Didier l'Serl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